

도덕성 발달 연구를 위한 역량중심 접근의 개념화

이 지 혜¹⁾

문 용 린²⁾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이 연구에서는 도덕성 발달 연구에 역량중심 접근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덕역량의 개념을 규명하고, 도덕심리학 관점에서 역량중심 접근이 갖는 의미를 확인하였다. 현재 도덕심리학자들은 도덕행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 있다. 도덕심리학 연구 동향과 도덕역량 관련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도덕역량 개념은 첫째,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도덕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이다. 둘째, 도덕행동을 구성하는 요소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무엇이 옳고 선한 행동인지에 대한 뚜렷한 인식에 기반 한다. 셋째, 도덕적 정서, 지식, 태도, 성향 등 개인의 내적 특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넷째, 개인 역량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집단 및 문화적 역량이 통합된 개념이다. 도덕성에 대한 역량중심 접근은 도덕적 롤모델의 비범한 능력을 수행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도덕적 수행의 실체와 도덕귀감자가 보이는 도덕역량을 학문적 논의로 이끌어 낼 체계적인 이론과 연구방법을 제공한다. 새로운 도덕역량 모형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한국인이 인식하는 도덕적 수행의 기준과 한국적 정서를 반영한 도덕귀감자 연구가 요구된다.

주요어 : 도덕성, 도덕역량, 도덕귀감자, 도덕심리학, 역량중심 접근

1)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E-mail : jihye79@snu.ac.kr)

2)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서론

사회에 필요한 인간의 능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21세기의 가장 활발한 논의는 ‘역량(competence)’과 관련되어있다. 심리학 분야에서 ‘역량’에 대한 논의는 McClelland가 1973년 “지능 검사에 대한 역량 검사의 우위성(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Intelligence)”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McClelland, 1998).

McClelland는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직장과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행동적 특성에 관한 폭넓은 관점을 제시하였다(김창대 등, 2008). 이후 역량 개념은 역량모델의 개발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역량 연구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현재 역량에 대한 연구는 30년 이상 축적되어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리더들, 주요 직업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역량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Boyatzis, 2008).

도덕·윤리 분야에서 역량중심 접근을 시도한 연구들은 21세기에 들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관련 연구들은 크게 역량 차원에서 도덕·윤리교육을 진단하거나 역량과 도덕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김광민, 2009; 윤현진, 2008; Corley, 2002; Ellemers et al., 2008; Jormsri et al., 2005; Kuther, 2000; Liska, 1999; Petrick & Quinn, 2000; Spurgin, 2004; Straughan & Lynn, 2002; Wojciszke, 2005a, 2005b)와 ‘도덕역량(Moral Competence)’이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도덕성을 측정·개발하려는 연구(고정식, 이옥분, 2007; 박경선, 최애경, 2008; 이승미, 2004; Brugman & Aleva, 2004; Duriez & Soenens, 2006; Park & Peterson, 2006; Sekerka, 2009)로

나누어볼 수 있다.

도덕성에 대한 역량중심 접근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역량 연구에 대한 간학문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도덕성 및 도덕발달 연구의 근간이 된 도덕심리학¹⁾ 접근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학문적 대안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도덕심리학 관점에서 도덕성은 사회적이고 대인관계적이며 어떤 정신 내부의 기제에 의해 지배되는 자발적인 활동이다. 도덕성은 인지, 정의, 행동의 상호작용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면적인 현상으로 상호의존적인 동시에 독립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Walker, 1995).

과거 수 십 년 동안 도덕심리학 연구는 도덕성의 독립적인 측면만을 강조해왔다. 정신 분석가들이 정서를 연구하고, 행동주의자들과 사회학습이론가들은 행동을 연구하며 인지발달 이론가들은 사고를 연구해 온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구분은 편리하기는 하지만 명확한 분석단위를 보여주지 못하며 분절된 논의를 키워왔다(Narvaez & Rest, 1995).

이중에서도 도덕심리학을 주도해 온 Kohlberg식 인지발달론은 도덕적 사고 및 추론 능력과 같은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만을 지나

1) 도덕판단력 이론을 제시한 Kohlberg(1958)의 박사 논문이 출간된 이후 심리학과 교육학 분야에서 도덕행위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도덕발달’ 개념만으로는 심리학 전반의 연구를 총칭하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학자들은 도덕발달 연구뿐만 아니라 심리학과 교육학에서 이루어지는 도덕행위와 교육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포괄하여 도덕심리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Kurtines, W. M. & Gewartz, J. L, 2004, 문용린 역, 역자 해제 인용).

치게 강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도덕행동이 자발적인 것으로 정신 내부적인 기제에 의해 지배된다고 볼 때 도덕추론에 대한 강조는 당연하다(Walker, 1995). 그러나 도덕적 정서, 도덕적 사고가 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대한 통합적 고려는 도덕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Kohlberg 이후 도덕심리학 관점에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학자는 Kohlberg와 Hoffman (1984)의 이론, 즉 인지와 정서의 통합을 시도한 Gibbs(1991, 2003)와 도덕행동을 구성하는 네 가지 심리적 과정을 종합한 Rest(1986, Rest & Narváez, 1994; Narvaez & Rest, 1995)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 Lickona는 인격교육의 관점에서 인지, 정의, 행동의 통합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개념 정의가 쉽지 않고, 각 요소들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정창우, 2003).

현재 도덕심리학자들은 도덕행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덕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학술지인 'Journal of Moral Education'에서는 최근 Kohlberg가 처음으로 도덕판단력 이론을 제시한 박사논문이 출간된 50주년을 기념하여 "Special Issue: Toward an Integrated Model of Moral Functioning"이라는 제목의 특별호를 발간하였다(2008). Kohlberg의 인지발달이론 이후 '도덕성의 작용'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의 특별호에는 가장 저명한 도덕심리학자들의 글이 실렸다.

도덕심리학에 대한 신경생물과학적 접근(Narvaez & Vaydich), 도덕적 인간상 모델 연구

(Frimer & Walker), 도덕적 자아에 대한 언어학 및 문화적 접근(Haste & Abrahams), Kohlberg 정의공동체 주의의 적용(Oser, Althof & Higgins-D'Alessandro) 등은 Kohlberg이후 도덕심리학 연구의 흐름을 보여준다.

도덕심리학에 새로운 이론을 접목하는 학자들의 목적은 여전히 도덕성의 작용에 대한 통합 모형의 개발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심리학 범주 안에서 Kohlberg식 도덕성 연구의 틀을 넘기는 어려워 보이며, 그들이 내놓은 새로운 접근 또한 아직 완전한 모형은 아니다(Reed & Stoermer, 2008). 이제는 도덕심리학의 범주를 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도덕성의 작용, 즉 도덕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통합된 시각을 가져야 할 때이다.

교육적 논의에 '역량' 개념이 도입된 이유는 교육의 무게 중심이 '아는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역량'은 사적인 영역에서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 생성된 개념이며, 지식교육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을 역량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평가를 위한 도덕교육이나 도덕 지식의 부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교육에 역량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에 의한 교육, 이론적 지식을 무기력한 것으로 규정한다는 비난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역량은 '지식'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김광민, 2009). 오히려 역량의 주창자인 Boyatzis, Spencer & Spencer, Wynne & Stringer, Parry 및 OECD는 역량의 정의에서 '지식'을 핵심요소로 꼽고 있다(표 1).

역량의 실체를 30년 이상 탐구한 Boyatzis

(2008)는 ‘정서, 사회성, 인지적 능력 세 차원에 대한 수행측면의 접근’으로 역량을 정의함으로써 인지적 측면의 중요성이 결코 간과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도덕성 연구도 이와 같다. 도덕심리학자들의 관심이 Kohlberg식 도덕적 사고, 즉 ‘무엇이 도덕적인 지를 아는 것’에서 ‘도덕행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동한다 해도 도덕 지식은 여전히 도덕적 행동의 핵심요소이다. 앞서 도덕성의 작용에 대한 통합 모형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Kohlberg식 도덕성 연구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역량 개념은 조직 구성원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인 역량모델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인지적(cognitive), 기능적(functional) 역량에서 성과와 관련되고 측정이 가능한 행동적(behavioral) 역량으로 변화되었다(오헌석, 2007). 역량 개념의 변화와 같이 도덕성 발달 연구도 도덕행동을 예측하는 분절된 요소로의 환원이 아닌, 비범한 도덕 수행 능력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행동적 측면의 시각이 요구된다.

우리는 사회 전반에서 남과 다른 비범한 도덕적 능력을 보이는 이들의 사례들을 접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남다른 도덕성은 대부분 일회성 보도나 자서전의 소재에 머물러 있다(Colby & Damon, 1992; Gardner, 2007; Liszka, 1999; Rugeley & Wart, 2006; Rule & Bebeau, 2005). 도덕성에 대한 역량중심 접근은 이들의 도덕적 비범성을 수행차원에서 분석함으로서 도덕적 수행의 실체와 도덕귀감자가 보이는 도덕역량을 학문적 논의로 이끌어 낼 체계적

인 이론과 연구방법을 제공한다.

인간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역량중심 접근은 도덕심리학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이론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범주 안에서 선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도덕적 열망,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비범한 능력을 해석하기 위해 ‘역량’을 도입 한 것이다.

본고는 도덕성 발달에 대한 통합적 접근으로 도덕성과 역량의 관계를 규명하고, 도덕역량을 개념화함으로서, 도덕심리학 관점에서 역량중심 접근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덧붙여 한국적 정서를 고려한 도덕역량 연구와 새로운 역량모형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도덕성에 대한 역량 접근 가능성 탐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도덕성과 역량의 관계

개인 내적 요소

인간의 능력에 대한 역량중심 접근은 교육심리, 리더십 연구, 다중지능이론 등 다양한 영역과 상호작용 하며 발전하고 있다(Richards, 2008; Schippman et al., 2000). 역량 개념을 도입하여 도덕성 연구에 ‘역량’ 개념을 적용한 본 연구 또한 완전히 새로운 시도는 될 수 없다. 도덕심리학의 저명한 도덕성 발달 이론들을 살펴보면 ‘역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을 뿐 인간 능력에 대한 역량적 관점을 함의하고 있다.

Kohlberg는 1950년대에 이미 광범위한 인터뷰 자료 수집을 통해 인간의 도덕 판단 능력의 수준 차이를 분류해냈고, 능력의 높고 낮은 수준 차이에 따라 도덕성 발달의 6단계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그가 도덕딜레마를 다루는 사람들의 사고능력을 직접 관찰하여 수준별로 분류한 연구는 분명 도덕 판단 역량을 다룬 것이었다(Lind, 2008).

Rest(1986)는 도덕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여 도덕성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인지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도덕성 발달의 '4구성요소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의 모형에 따르면 도덕 행위는 도덕민감성, 도덕판단력, 도덕동기, 도덕품성의 네 가지 심리적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인지와 정서는 모두 각각의 요소 안에서 서로 얽혀 있으며 네 요소의 상호작용은 도덕행동의 산출과 관련된다.

행위를 유발하는 인간의 내적 특성을 동기, 특질, 자아 개념, 지식과 행동 측면인 기술 요소로 제시한 Spencer와 Spencer(1993)의 역량 인과관계 모형(Competency Casual Flow Model)과 도덕행동 과정의 통합적 해석을 제시한 Rest(1986; Narvaez & Rest, 1995)의 4구성요소모형(Four Component Model)을 비교해보면 기대 이상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역량 인과관계 모형에서 동기(motive)는 개인이 일관되게 마음에 품고 있거나 원하는 어떤 것으로 행동의 원인이 된다. 동기는 특정한 행위나 목표를 향해 행위를 촉발시키고, 방향을 제시하며, 선택하도록 작용한다.

Rest는 도덕동기(moral motivation)를 그 사람이 다른 모든 가치와 의도들보다 도덕적 가치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 가치를 실행하고자

하는 추진력을 갖게 하는 요소로 본다.

둘째, 역량 인과관계 모형에서 특질(trait)은 신체적인 특성, 상황 또는 정보에 대한 일관적 반응성을 의미한다. 신속한 반응, 감정적 통제와 주도성, 문제를 해결 할 때의 침착성 등으로 나타나며 동기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타고난 요소이다.

Rest는 도덕민감성(moral sensitivity)을 상황 또는 정보를 접했을 때, 어떤 행위들이 가능하고, 그 행위들에 의해 누가 그리고 무엇이 영향을 받으며, 그 행동에 참여한 일행들이 가능한 결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았다. 도덕민감성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감각적 인식 체계의 수용 정도를 나타낸다.

셋째, 역량 인과관계 모형에서 자아 개념(self-concept)은 태도, 가치관, 또는 자아이미지를 의미한다. 가치관은 주어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나타내는 반응 행동에 영향을 준다.

Rest의 모형에서 도덕품성(moral character)은 선택된 행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내, 굳건함, 혹은 수행에 대한 자신감, 지각된 자아효능감 같이 인격(character)과 관련된 요소이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도덕행동 실천에 필요한 자아강도(self-strength)이다.

넷째, 역량 인과관계 모형에서 지식(knowledge)은 특정 분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이다. 지식은 복잡한 속성을 가진 역량이다. 지식은 암기를 통해 정답을 고르는 능력을 측정할 뿐 지식을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지식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줄 뿐,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예측하지 못한다.

Rest의 도덕판단력(moral judgement)은 가능한 행동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도덕적인지를 결정하는 인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알고 있는 지식들을 논리적으로 추론해보고 자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체계가 도덕적 체계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지적 과정이다.

도덕판단력은 실제로 가장 많이 측정되고 연구되었지만, 도덕적 가치를 실행시키는 기술과 행동의 추진체인 도덕동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Narvaez & Rest, 1995). 즉, 도덕판단력은 그가 도덕적인 상황에 대해 어떠한 수준의 지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줄 뿐 도덕판단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섯째, 역량 인과관계 모형에서 기술(skill)은 특정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정신적 또는 인지적 기술은 지식과 데이터를 처리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분석적 사고와 복잡한 데이터의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개념적 사고 능력을 포함한다.

Spencer와 Spencer의 기술 요소는 고도의 사고능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해결능력으로 지적 측면을 다루고 있지만 행동과 직결되는 요소로 Rest 모형의 결과물인 도덕행동과 견줄 수 있다.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 모두 각각의 과정에 대한 수행과 동시에 전체적인 과정의 실행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행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개인 내부의 다양한 측면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두 모형에 기반하여 우리는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거나, 저조한 수행을 보이는 사람은 최소한 4가지 과정을 통제하지 못했거나, 구성 요소들 간의 약한 연계가 일어났음을 추론할 수 있다. 두 모형은 사람들이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분석 단위를 제공한다.

도덕성의 작용을 설명하는 4구성요소 모형은 실제로 20년 넘게 법학, 의학, 치의학, 간호학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 교육 모형으로 사용되고 있다(Bebeau, 2002). Rest의 도덕성 발달 모형은 도덕성의 네 가지 측면을 측정하고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전문성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교수전략을 세우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Bebeau, 1993). 때문에 작업 현장에서 지식을 수행으로 직결시키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도덕 교육에 적극 활용되어 왔다.

Rest의 4구성요소 모형은 도덕성 발달과 작용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유용한 기준을 제공한다. Spencer와 Spencer의 역량 인과관계 모형을 Rest 이론과 비교한 예와 같이, Narvaez와 Vaydich (2008)는 도덕심리학에 신경생물과학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fMRI를 이용한 기존의 뇌 연구들을 도덕민감성, 도덕판단력, 도덕동기, 도덕품성의 4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들은 도덕성 발달 연구에 신경생물과학적 접근을 시도한 이유로 Kohlberg가 도덕성의 외적 측면, 원칙에 의한 도덕성에 주목하느라 양심과 정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며, 도덕행동을 이끄는 정서적 동기에 초점을 두어 Kohlberg 이론의 간극을 매우고자 한다.

최근 도덕심리학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Rest 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또한 제기되고 있다. Rest는 만약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사건에 대한 4가지 내적 구성요소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도덕행동을 분명히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공헌은 인지와 정서, 행동으로 나누어졌던 도덕성의 작용을 도덕성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연결시켰고, 도덕적 중재가 가능하도록 측정과 적용이 가능한 체계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4구성요소모형을 활용한 20여년의 연구 결과들을 돌아보면 Rest의 이론은 그가의 의도한대로 측정되고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 내적 요소에 대한 강조로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도덕성의 작용에 미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말았다.

Walker(2002)는 Kohlberg부터 현재까지 도덕심리학을 주도하고 있는 미네소타 학파와 그 중심에 있는 Rest 이론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 번째 요소인 도덕민감성은 네 가지 구성요소 중 인지와 정서의 상호작용이 가장 요구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둔 도덕적 해석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두 번째 요소인 도덕판단력은 Kohlberg 학파의 전통 속에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인지적 측면의 판단력을 나타내는 이 요소에서도 정서와 인지의 상관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못한다.

세 번째 요소인 도덕동기는 ‘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도덕성의 작

용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이다. Rest는 도덕동기에 대한 주요 반론들을 재개념화하고 스스로 다양한 경험 연구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4구성요소모형이라는 틀 안에서 도덕동기가 어떻게 다른 요소들과 종합되고 포괄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지는 못했다.

네 번째 요소인 도덕품성은 도덕행동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용기, 인내력, 자기조절, 청렴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자기조절 능력의 발달은 사회화의 과정에 수반되기 때문에 매우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그 외의 성격 특성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도덕심리학이 덕목을 폄하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며 현재까지도 그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Rest를 비롯한 저명한 도덕심리학자인 Narvaez, Bebeau(1999)는 여러 덕목들을 통해 도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인격교육에 대해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경험 연구의 기반도 없이, 마치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약을 투여하여 환자를 고치려고 하는 의사를 빗대어 비판하였다(정창우, 2004, 재인용). 그러나 공교육 체제 안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 공동체의 통합적인 인격 발달을 도모하고, 교육과정 전반에서 덕목의 가치를 강조하고 체화시키는 인격교육론은 분명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도덕심리학자인 Walker는 도덕성의 작용에는 개인의 도덕적인 성격 특성과 덕목에 대한 강조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경험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기도 하였다(Walker, 1999; Walker & Hennig, 2004; Walker & Pitts, 1998).

도덕성 발달에 대한 통합적 측정의 가능성

을 열어 준 Rest의 공헌은 결과 중심의 교육과정, 즉 ‘산출물’의 효율성을 고려한 도덕교육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역량중심 접근과 연결된다. 인간의 복잡한 심리 상태를 거쳐 행위가 발현되는 과정을 체계화한 두 모형은 결국 인간의 능력발현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추려놓은 한 형태이다.

두 모형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4구성요소 모형에서는 역량 인과관계 모형과 달리 도덕행동에 대한 과정요소들의 상호과정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궁극적 성취 결과인 ‘행위’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이다.

결국 도덕행동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시도한 Rest조차도 도덕성의 내적 특성으로부터 도덕행동을 분석해 나가는 도덕심리학 연구의 전형을 벗어나지는 못한 것이다. 때문에 Rest 이론이 기존의 이론들에 비해 도덕행동에 대한 예측력을 높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심리과정 변인들이 도덕행동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명확치 않다.

도덕성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도에서는 도덕성을 구성하는 개인 내적 요소 및 성격특성들과 개인 외적 요소들 간의 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덧붙여 도덕성의 인지와 정서적 요소의 점진에 대한 고려는 도덕성의 작용을 해석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행동이 나타난 사태 속에서 행위의 원인을 분석하는 역량중심 접근은 도덕성 연구의 시작점을 도덕행동 그 자체로 상정한다. 이 같은 사고의 전환은 4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명쾌히 제시하지 못한 Rest 이론을 보완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특히 도덕행동을 촉발시키는 동기는 적용범

위에 따라 변화하는 역량의 정의들 속에서도 공통되는 주요 요소이며, 비범한 도덕행동을 보이는 도덕귀감자 연구를 통해 가장 강력하게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성과 덕목에 대한 연구는 역량 연구의 주요 접근 방식 중 하나이다. Dubois(1993)에 의한 역량 추출 분류 중 주요 특성적 접근(Critical Trait Approach)은 고성과자의 주요한 개인적 특성, 행동, 기타 특징들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특히 추상적인 업무에 대한 역량 추출에 더욱 유용하며, 현재의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찾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가치와 영속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이홍민, 김종인, 2003, 재인용). 도덕행동은 다른 어떤 사회과학 현상보다도 추상적이고, 불안정하며, 가치 지향적인 작용이다. 역량중심 접근은 도덕성의 작용에 관여하는 개인 내적 요소, 특히 성격과 행동 특성들을 분석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개인 외적 요소

도덕심리학은 도덕성이 단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그것이 실천되었을 때 유의미한 것이라는 의식에 기반하여, 도덕성을 인간의 현상적·경험적 측면과 연계하여 연구하고자 한다(이정렬, 2008). 다채로운 환경 속에서 도덕성이 행동으로 실천되고 발현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할 때 도덕심리학적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도덕심리학은 전통적으로 도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에 대한 고려보다는 인지

적 측면의 연구에 치중해 왔다.

도덕성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실험인 Hartshorn과 May(1928~1930)의 ‘인격의 본질에 관한 연구(Studies in Nature of Character)’는 도덕심리학에서 변화 가능성이 있는 성격이나 태도, 행동보다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그들은 도덕적인 인격을 구성하는 ‘정직’과 같은 성격 특성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일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Power, 1997).

Hartshorn과 May의 연구를 시발점으로 도덕심리학은 도덕행동에 대한 제한된 시각을 갖게 되었고 그 틀을 오래도록 유지해왔다. 그러나 오히려 도덕행동의 가장 큰 변수가 그가 속해있는 상황이라는 그들의 연구는 이후 도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문화·사회화·맥락·환경과 같은 개인외부의 요소들(Kim & Sankey, 2009; Laupa & Turiel, 1995; Staub, 1995)을 고려한 새로운 이론들의 등장에 단초를 제공하였다.

도덕성 발달의 궁극적 목적은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마찬가지로 역량중심 접근은 성과를 통해 성공적인 수행에 필요한 개인의 내재적 특성을 강조하며 그 행동의 지속 가능성을 찾는데 초점을 둔다(Guion, 1991; Spencer & Spencer, 1993에서 재인용). 역량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맥락(context), 즉 변화무쌍한 작업 환경을 얼마나 잘 조절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는가의 문제이다(Sandberg, 2000). 역량과 도덕성이 발현되는 데에 내재적 특성이 주요한 작용을 했다면 발현된 능력이 지속되는 데에는 개인 내적 요인과 외부 조건들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Boyatzis는 뛰어난 수행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역량 연구를 통해 그들의 역량을 인지역량, 정서지능역량, 사회지능역량으로 분류하였다. 그의 역량 이론은 단순히 개인의 수행이나 성과가 아닌 외적 요구와 환경의 영향력을 고려한 전인적 이론(holistic theory)에 기반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개인의 수행은 그의 내적 역량이 직업적 요구, 조직 환경과 일치하는 부분(Best fit)에서 극대화된다(Boyatzis, 2008).

유사하게, 교육학 분야에서는 Gardner, Damon, Csikszentmihalyi(1994~현재)가 훌륭한 수행을 보이는 전문직업인을 조사하여 그들의 능력 발현에 관여하는 외부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GoodWork Project^②’를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비범한 수행을 보이는 여러 분야의 전문직업인 1200여명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수행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조건을 GoodWork 모형으로 제시하였다(그림 2).

‘GoodWork Project^②’의 연구방법은 심리학자인 Csikszentmihalyi의 체계적 접근(System Approach)을 Gardner가 비범한 인물의 생애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Boyatzis의 역량 분석과 같이 전문직업인의 삶을 개인, 사회, 환경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창조적인 지적 성취의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개인(individual), 영역(domain), 분야(field)로 구성되는 세 가지 요소의 조화와 균형 잡힌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한다.

2) <http://www.goodworkproject.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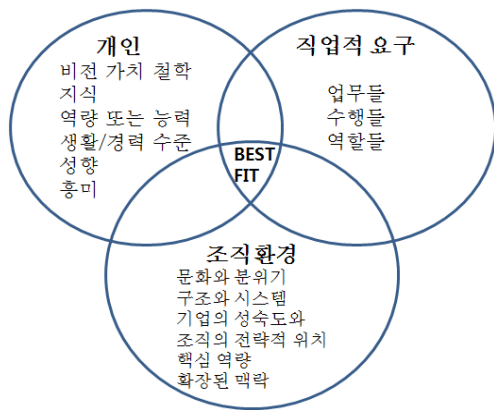


그림 1. Boyatzis의 수행 이론(1982, 2008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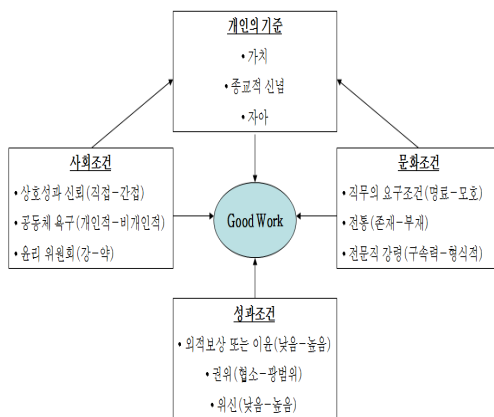


그림 2. GoodWork 모형(2006)

그들이 영역과 분야로 관심을 확장시킨 이유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 개인 내적인 작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능력이 비범한 성취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표출할 수 있는 적절한 ‘영역’과의 만남이 필수적이며 개인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달시키는 동력은 수행을 지속시키는 보상과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타자들, 넓게는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 구성되는 ‘분야’와의 상

호 작용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GoodWork Project^① team, 2006).

Boyatzis의 역량 이론과 GoodWork 모형은 인간의 능력 발현에 관여하는 요소를 개인 내적 범주에서 개인 외적 범주인 조직, 사회, 문화로까지 확장시켰다. 한 인간의 잠재 역량은 외부 요소들과의 완전한 조화를 이룬 접점에서 극대화된 수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두 이론은 개인을 둘러싼 외부 환경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두 이론이 이처럼 유사한 이유는 GoodWork 연구자들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다중지능의 창시자인 Gardner는 종래의 지능 이론에 대해 역량 연구자들과 같은 관점을 표명하고 있으며 지능 측정 방법 또한 역량 연구 방법과 유사하다(문용린 등, 2007). 두 이론의 차이가 있다면 GoodWork연구에서는 개인의 비범한 능력이 반드시 윤리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GoodWork Project^① team, 2008).

GoodWork연구에 참여하기 전부터 도덕적으로 비범한 수행을 보이는 도덕적귀감자들의 사례를 연구해 온 Damon은 귀감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 중심에 도덕적 목표가 강하게 동기화 되어 있음을 알았다(Colby & Damon, 1992). 그가 GoodWork 연구에서 인터뷰한 성공한 직업인들의 공통적인 역량은 바로 ‘도덕적 유능성(moral excellence)’이었다(Damon, 2004).

최근 도덕심리학 분야에서도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소들에 대한 확장된 패러다임이 제시되었다. Kim과 Sankey(2009)는 신경생물학적 발달이론인 Thelen과 Smith(1994)의 역동적 체계 접근(Dynamic System Approach)을 도덕심리학 분야에 적용하였다.

인지발달 선상에서 나타나는 인지역량과 수행의 차이를 분명히 강조한 역동적 체계 접근의 관점에서도 역량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중요하다. 그들은 낯선 단어를 해석하지 못하는 미숙한 수행을 보인 어린 아이의 인지역량을 예로 든다. 아이의 수행은 미숙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아이의 두뇌 속에는 그 단어에 대한 인지역량이 충분할 수 있다. 다만 이 아이는 기억력, 집중력, 언어 구사능력 등 수행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던 다른 인지 역량들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실패했을 뿐이다. 어느 분야에서건 단 하나의 역량만으로는 그 가 보이는 수행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역량에 대한 정의는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Thelen & Smith, 1994).

마치 도덕 지식과 도덕행동의 차이에 대한 설명과 같은 위 예는 도덕적 수행을 통해 단일의 인지능력인 추론능력을 측정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인지적 범주 내에서만 역량과 수행의 차이를 다루었다는 차이점을 고려한다 해도, 역량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도덕성에 역량중심 접근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풀어가야 할 다음의 주요한 과제를 시사한다.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인지역량은 인지와 관련된 기억, 집중, 전략과 같은 장치들을 통해 적용의 과정을 거쳐 수행으로 표현된다. 역동적 체계 이론에서 적용의 과정은 우리가 속한 물리적 세계, 잠재 역량에 맞서는 현실의 에너지이다. Boyatzis의 역량 이론과 GoodWork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듯이 도덕적 수행으로부터 도덕역량을 측정 할 때에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Kim과 Sankey가 신경생물학적 인지발달이론을 도덕성 발달에 적용한 사례는 역량중심 접근과 같이 도덕심리학의 범주 안에서 도덕성 발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이다. 그들은 도덕행동이 불안정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도덕성 발달이 복잡하고, 예측불가능하며, 심한 개인차와 상황특수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경험과 맥락의 변화에 따라 비선형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으로 본다.

그들의 시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도덕성에 대한 역량중심 접근에서 매우 신중히 다루어야 할 부분이 바로 ‘발달’이라는 점이다. 발달의 개념에는 도덕역량의 개인 내부와 외부의 요소가 모두 포함된다. 도덕성의 작용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을 역설한 ‘Journal of Moral Education’의 2008년 특별호는 바로 이 도덕성의 발달에 대한 논쟁을 수면 위로 이끌어 냈다.

Gibbs와 동료들(2009)은 특별호에 실린 도덕심리학 이론들이 도덕성의 발달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오류를 범했으며, Kohlberg의 인지발달론에 대한 현재의 비판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들은 인지발달론이 지난 50년 동안 꾸준히 진보해왔고, 도덕심리학자들이 새로운 발견이라고 주장하는 도덕동기와 사회적 행동과의 관련성, 문화적 맥락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들은 이미 Kohlberg의 이론 안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Kim과 Sankey(2009) 또한 도덕성의 작용을 설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개된 도덕심리학 이론들에 실망감을 표명하며, 유기체의 발달을 선형적이고 양적인 변화, 경험과 맥락

의 변화가 창발(emergence)적으로 일어나는 비선형적이고 질적인 변화로 본다. 즉 인간의 발달은 Kohlberg와 Piaget 식의 점진적이고 선형적인 단계적 발달이 아닌, 안정과 불안정 상태의 연속적인 변화이다.

발달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면 연구의 기본 단위는 집단이 아닌 개인 유기체로 바뀐다. 대부분 대규모 집단검사에 기반한 심리 발달 이론들은 역동적 체계 이론으로부터 근본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이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역동적 체계 이론은 아직 도덕성 분야에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한 적이 없으며, 다양한 도덕성 발달 연구와 비교 검증을 통해 타당성을 입증 받지 못했다(Reed, 2009).

도덕성 발달에 대한 역량중심 접근은 역동적 체계 이론과 같이 도덕성의 작용을 설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도이며 아직 개념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도덕성에 대한 역량 중심 연구에서는 도덕성의 작용을 단순한 ‘변화’가 아닌 ‘발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어떠한 수준을 발달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도덕역량을 중심으로 도덕심리학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역량연구 방법을 적용한 경험 연구 또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역량중심 접근은 이미 수행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행동사건면접, 행동유형관찰, 360° 다면평가, 패널활용 등의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30년 이상의 현장 연구를 통해 연구 도구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도덕성과 역량은 모두 상황 속에서만 발현되는 맥락 의존적인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언

제나 행동을 통해 발현되고 측정되어야 한다(Sandberg, 2000). 또한 우수한 성과를 통해 고수행자를 분류하는 역량중심 접근과 같이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도 분명 도덕행동을 잘 하는 사람과 못 하는 사람이 구분된다. 그러나 우리는 ‘도덕’ 사태가 갖는 추상적이고 복잡한 가치, 맥락에 따른 수행지속성의 난관 등으로 인해 도덕적인 유능성을 개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화 하지 못하고 있다.

도덕역량 개념은 개인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도덕적 비범성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데에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도덕적 수행으로부터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도덕역량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역량 연구방법론을 선택하고 수행의 특성에 맞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

2. 도덕역량의 개념화

역량의 사전적 정의는 “적절하거나 뛰어난 자격을 갖춘 상태나 질”이다(Lucia & Lepsinger, 1999). 실제로 역량을 정의하기 위한 준거는 학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 철학이나 학문 배경, 주변 환경에 따라 다양하며, 용어가 사용되는 학문 영역 및 시기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역량에 대한 하나의 정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더 나아가 역량이란 개인적 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와 인류의 삶 전반에서 요구되며 활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DeSeCo 프로젝트에서 정의한 핵심 역량의 준거는 삶의 다양한 분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올바르게 기능하는 사회를 이끄는 데 공헌해야 하며, 모든 개인이 필요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Rychen & Salganik, 2003).

역량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는 크게 두 가지 주요 의미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훈련의 결과로 숙련된 수행, 즉 산출요소(output)와 관련된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숙련된 수행을 하기위해 요구되는 내적 변인들인 투입요소(input)와 관련된 의미로 보는 것이다(Hoffman, 1999).

표 1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분류될 수 있는

정의들을 정리하였다. 역량을 정의하기 위해 많은 논문들을 검토 한 Parry의 정의는 비교적 종합적이고 상세하다. 역량을 정의 한 여러 학자 들 중에서도 Spencer와 Spencer, Boyatzis, McClelland, McLagan등의 역량 연구와 연구 방식은 도덕역량의 개념화 작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지금까지의 도덕심리학은 도덕행위가 기반하고 있는 개인 내면의 도덕적 특성들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점에서 후자의 역량 개념에 가깝지만, 내적 특성과 관련된 역량의 정의들을

표 1. 내적인 특성과 관련된 역량의 정의들

학자	역량의 정의
McClelland(1973)	현장에서의 우수한 직무성과를 예측하게 하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
Klemp(1980)	어떤 개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내재적 특성
Boyatzis(1982)	외적 성과 준거에 비추어 평가했을 때 효과적인 행동과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개인의 일반적인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특질(traits), 동기(motive), 자기 이미지(self-image), 혹은 사회적 역량(social role)으로, 단지 어떤 것을 알고 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행 할 수 있는 능력
McLagan(1982)	직무나 역할 수행에서 뛰어난 수행자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 특성
Dubois(1993)	역량은 삶에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
Spencer & Spencer(1993)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구체적인 준거나 기준과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우수한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동기(motive), 특질(trait), 자기개념(self-concept), 지식(knowledge), 기술(skill)등 개인의 내적 특성
Wynne & Stringer(1996)	기술, 지식, 태도의 집합체로서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업무에서 요구되는 결과를 내기 위해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
Parry(1996)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주요한 부분들에 영향을 주고, 업무 성과와 관련성이 높고, 조직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성과기준에 대비하여 측정될 수 있으며, 교육훈련과 개발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태도의 집합체
OECD(2005)	지식과 기술, 그 이상의 것으로, 국제화(globalization), 현대화(modernization)로 인해서 복잡해진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 또는 지식, 기술, 태도 그리고 가치

자료: 이흥민, 김종인(2005), p21에서 수정 · 보완

살펴보면 역시나 수행, 즉 내적 변인들의 작용적 측면 또한 강조하고 있다.

Boyatzis, Spencer와 Spencer, Dubois, Wynne와 Stringer의 정의는 도덕심리학자들의 관심이 ‘아는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동한 것과 같이 행위로서의 역량을 강조 한다.

역량은 기술, 특질, 동기, 자기 개념, 태도, 가치 등과 같은 개인의 내적인 특성을 포괄하는 집합체적 성격으로, 도덕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인간의 다양한 심리 기저를 종합하여 설명하는 틀로 사용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조직뿐만 아니라 학업,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간의 다양한 기능과 능력에 역량 개념을 도입한 연구가 늘면서 직업역량, 지도성역량, 대인역량, 팀워크역량, 문화적 역량, 또래역량 등의 역량 신조어들이 늘고 있다.

도덕적 측면에서 역량 개념을 적용한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도덕과 역량의 관계 혹은 도덕역량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연구는 국내에서 5건(고정식, 이옥분, 2007; 김광민, 2008; 박경선, 최애경, 2009; 윤현진, 2008; 이승미, 2004), 국외에서 16건(Brugman & Alea, 2004; Corley, 2002; Duriez & Soenens, 2006; Dwyer, 1999; Ellemers et al., 2008; Jormsri et al., 2005; Kuther, 2000; Park & Peterson, 2006; Patiño-González, 2009; Petrick & Quinn, 2000; Richards, 2008; Sekerka, 2009; Spurgin, 2004; Straughan & Lynn, 2002; Wojciszke, 2005a, 2005b)의 학술논문과 1권의 저서(Liszka, 1999)를 찾을 수 있었다³⁾.

국내 연구 3건은 경영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단순히 ‘청렴 능력(integrity capacity)’을 ‘도덕적 역량’으로 번역한 것으로 Petrick & Quinn(2000)의 연구에 기반 한다. Petrick과 Quinn은 ‘청렴 능력(integrity capacity)’을 도덕적 인식, 도덕적 검토, 균형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특성과 행동들의 반복되는 과정에 대한 개인적 혹은 집단적 역량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도덕 발달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도덕적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촉진하는 도덕적 태도와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그들의 연구는 국내에 ‘도덕적 역량’으로 번역되어 주로 직장상사의 도덕적 능력을 측정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고정식, 이옥분, 2007; 박경선, 최애경, 2008; 이승미, 2004).

국외 연구 중 Liszka(1999)의 저서와 Jormsri 등(2005), Park & Peterson(2006)의 ‘도덕역량(Moral Competence)’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Liszka(1999)는 저서인 「도덕역량: 윤리학 연구에 대한 통합적 접근(Moral Competence: An Integrated Approach to the Study of Ethics)」에서 도덕역량을 ‘선한 도덕적 행동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호 의존하여 옳은 행동을 언제나 일관성 있게 수행하도록 숙달된 것’으로 정의한다.

옳은 행동을 하는 능력인 도덕역량은 옳은 행동을 하겠다는 갈망, 의지, 지속하겠다는 성향, 옳은 행동을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한 지식과 해야 할 옳은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이 상호 의존함으로서 비로소 발현된다. 이를 전통적으로 쓰인 용어로 표현하면 도덕 정

3) 검색에 사용 된 Database: Academic Search Complete(Ebscohost), Business Source Complete(Ebscohost), Educational Research Complete(Ebscohost),

Eric(CSA), ScienceDirect, 누리미디어(KRPIA), 한국학술정보(KISS), 학술교육원(E-Article)

서, 도덕 강점, 덕목, 지혜, 그리고 도덕 지식으로 표현된다(Liszka, 1999).

Jormsri 등(2005)은 태국 간호사들을 인터뷰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덕역량을 ‘특정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감정을 지각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 감정을 성찰해보고, 상대방(환자)에게 최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그들의 정의에서 도덕역량은 상대방이 추구하는 가치와 감정을 인식하기 위한 정서적 차원인 ‘도덕적 인식’과 논리적인 추론과 비판적 사고에 입각하여 선택된 가치들의 의미를 인지하는 차원인 ‘도덕적 판단’, 끝으로 선택한 가치를 행동으로 실현하고 대중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동일한 행동을 꾸준히 지속시킬 수 있는 행동적 차원인 ‘도덕적 행동’이라는 세 차원이 결합될 때 발현될 수 있다.

Park과 Peterson(2006)은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 측정도구(VIA)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 과정에서 좋은 성격의 핵심에 도덕역량이 위치하며, 도덕역량은 인간이 가치 있고 선한 행동을 추구하고, 행동하도록 이끌어준다고 본다. 그들은 도덕역량을 ‘선한 삶을 추구하고 선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식, 능력과 동기로 가치 있고 선하다고 여겨지는 목표를 향한 행동과 직결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도덕역량을 제외한 역량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표달성을 위한 것으로 도덕역량과 달리 반드시 윤리적일 필요는 없다. 때문에 역량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기고 희생시킨다는 전형적인 인식이 역량과 도덕성을

함께 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만들고 말았다. 역량의 다차원성에 주목한 그들의 입장에서 도덕역량은 다른 역량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모든 역량들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포괄적 개념이다.

도덕성이 높은 사람과 역량이 높은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몇 편의 연구에서는 도덕과 역량에 대한 이분법적 설문과 분석으로 인해 둘 사이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Kutner, 2000; Wojciszke, 2005a, 2005b).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두 개념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며, 역량을 중시하는 집단과 남들보다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은 타인을 이기고 희생시킨다는 의식이 깔려있다는 연구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Ellemers et al., 2008; Straughan & Lynn, 2002). 이는 역량이 뛰어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역량과 도덕성을 함께 논의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Park과 Peterson(2006)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멕시코 고등교육 연합이 대학생들의 윤리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 교육 계획인 QEP(Quality Enhancement Plan, 2008~2013)는 역량 개념이 도덕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준다(Patiño-González, 2009). 그들은 역량을 ‘고등교육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학생 활동에 참여하고, 검증받은 학과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에게서 개발되고, 측정가능한 지식, 기술, 행동과 가치들’로 정의한다.

QEP를 통해 학생들이 얻게 될 네 가지 윤리 역량은 ‘첫째, 전문가의 행동, 환경 및 사람과 관련된 윤리적 이슈들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능력, 둘째, 인간과 환경에 대한 존중,

셋째, 사회, 경제, 정치적 현실에 대한 민감성과 지식, 넷째, 시민성을 갖춘 행동과 공동체, 특히 사회계층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책임감'이다. 10년을 목표로 계획된 QEP는 윤리역량 프로그램과 교육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역량평가지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이다. 국가 차원에서 역량 개념을 활용하여 국민의 시민성과 윤리의식을 도모하는 멕시코의 교육정책은 DeSeco 프로젝트와 같이 사회와 인류의 삶 전반을 고려한 광범위한 역량 개념을 윤리교육정책에 반영한 사례이다.

이 외의 연구들은 도덕추론능력, 의사결정력, 도덕적 갈등 해결력, 청렴도, 도덕적 언어 능력과 같은 다양한 도덕 능력들을 한데 묶는 포괄적 개념으로 역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Brugman & Aleva, 2004; Corley, 2002; Duriez & Soenens, 2006; Dwyer, 1999; Sekerka, 2009; Spurgin, 2004).

이상의 도덕역량 연구와 도덕귀감자 연구를 종합할 때 도덕역량은 '도덕적인 행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적·정서적 강점과 동기요, 스스로 추구하는 도덕중심화된 삶을 언제나 일관성 있게 수행하도록 숙달된 능력'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도덕역량'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특성으로 개념화한다.

첫째, 도덕역량은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도덕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이다. 도덕성 연구에 대한 역량중심 접근은 도덕행동의 일관성 있는 실천력과 상황맥락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도덕성은 상황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안정적이지 못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도덕행동 수행 능력은 도덕역량의 주요한 특성이다.

둘째, 도덕역량은 도덕행동을 구성하는 요소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무엇이 옳고 선한 행동인지에 대한 뚜렷한 인식에 기반한다. 역량중심 접근은 도덕역량의 요소들로부터 도덕 행동을 키워나가는 도덕심리학 관점에서 벗어나, 도덕행동이 발생하는 현장으로 연구의 영역을 옮겨 고수행자를 분석하고 그들의 도덕적 잠재 능력을 탐색하는 방식을 택한다.

셋째, 도덕역량은 도덕적 정서, 지식, 태도, 성향 등 개인의 내적 특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역량중심 접근은 도덕성과 관련 된 인간 내부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뿐만 아니라 성격 및 태도 등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서 인지발달론의 전통에 매어있는 도덕심리학의 한계를 수용할 수 있다.

넷째, 도덕역량은 개인 역량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집단 및 문화적 역량이 통합된 개념이다. 도덕심리학에서는 대표적으로 도덕성 발달을 사회, 문화, 전통 영역으로 확장시킨 Turiel이 사회영역이론을 통해 도덕성의 영역 특수적 성격을 제안한 바 있다(Laupa & Turiel, 1995). 역량중심 접근 방식은 우수한 도덕적 잠재 역량을 가진 개인이 사회·환경 조건에 따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를 개인 외적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확장된 관점을 제공한다.

3. 도덕심리학에 대한 도덕역량 관점

경영학 분야에서 역량은 역량모델링(Competency Modeling)을 통해 인적자원을 선

발, 평가, 승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 McLagan(1980)은 역량모델링을 특징한 직무나 역할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주요 능력을 규명하는 의사결정도구로 본다. 그 산출물인 역량모델은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지적 전략을 포함하는 역량을 체계화해 놓은 것이다. 종합하면, 역량모델링이란 우수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남다른 행동 특성을 구체적이고 경험적으로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역량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은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다. 그 특성들은 우수한 수행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우수성과자들을 파악하며,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내라는 McClelland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었다. McClelland의 중요한 원칙은 사람들의 역할에 대한 선입견 없이 우수한 성과자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에 주위를 기울이는 것이다(Lucia & Lepsinger, 1999; McClelland, 1998).

이러한 역량모델링은 도덕심리학 분야에서 도덕귀감자(Moral exemplar)의 특성을 밝혀내는 연구 방식과 유사하다. 도덕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도덕귀감자들은 도덕 분야의 우수성과자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도덕적 인재로 역량모델링을 개발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다.

도덕심리학 분야에서 도덕역량과 가장 가까운 개념은 Damon, Walker와 Frimer가 도덕귀감자들이 보이는 도덕적인 능력을 지칭한 ‘도덕적 유능성(moral excellence)’이다.

Colby와 Damon(1992)의 훌륭한 사회운동가들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그들의 도덕적 행동

은 변화에 대한 개방성, 도덕적 가치와 원칙에 대한 확신, 긍정적이고 인간적인 태도와 신념, 도덕적인 삶에 대한 강한 정체감 때문이었다. 도덕귀감자들은 개인적 관심과 삶의 목표가 도덕적으로 헌신하는 삶과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다. Damon(2004)은 후에 도덕귀감자들 중 성공한 기업인 사례만을 따로 분석하여 그들의 성공에 도덕적 유능성이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했음을 밝혔다.

도덕적 인간상에 대한 사람들의 자연주의적 신념(naturalistic conception)으로부터 시작된 Walker의 연구는 도덕귀감자들에 대한 인식연구와 다양한 사례 분석으로 이어졌다(Walker & Pitts, 1998). Walker와 동료들은 도덕귀감자들을 인터뷰하기 전, 일반인들이 도덕귀감자의 특성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들은 대학생, 대학원생, 성인 약 2000명이 보이는 도덕귀감자에 대한 다양한 인식 정보들을 종합하여 유형화하였다(Walker, 1999; Walker & Hennig, 2004; Walker & Pitts, 1998).

연구 결과, 사람들은 도덕귀감자들에 대해 ‘양심적인, 착한, 선량한’과 같이 인지적인 측면이 아닌 성격이나 덕목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도덕귀감자들의 종류(배려, 정의, 용기)에 따라 상이한 인식 유형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들이 도덕귀감자의 종류를 ‘배려가 남다른 사람, 정의로운 사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분류한 이유는 도덕적 수행에도 다양한 차원이 있으며, 사람들은 그 다양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적 구분을 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도덕귀감자들의 인지적 측면 이상의 다양한 특성들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추후 도덕귀감자 사례 연구에서는 반드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도덕적 수행을 구분하는 기준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도덕귀감자에 대한 인식 연구 결과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숨어있는 도덕귀감자들의 성격적 특성을 찾아내고 유형화하는 데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격의 Big Five 모델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분류한 Walker 식의 범주는 성격 특성에 한정된 결과만을 보여주며 복잡한 도덕성 요소들의 수준을 척도화 하거나 행동지표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그 후 Matsuba와 Walker(2005)는 40명의 청소년 도덕귀감자와 일반 청소년 40명의 생애사를 비교하여 귀감자들만이 보이는 도덕적 유능성을 추출하였다. 청소년 도덕귀감자는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적이 없으며, 도덕적 역량을 강화할만한 경험이 많았다. 그들은 자신을 희생하여 사람들을 구원한 경험이 많고, 순수하며, 삶의 목표 역시 사회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소년 도덕귀감자 연구는 성인 도덕귀감자 연구로 이어진다. Walker와 Frimer(2007)는 용감한 시민, 봉사하는 시민 상을 받은 50명의 캐나다인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그들이 보인 도덕행동의 원인을 탐색하였다. 각기 다른 차원 도덕수행을 보여준 도덕귀감자들을 분석한 결과, 도덕동기, 도덕인지보다 도덕적 정체감이 도덕행동을 더 잘 예언하며, 양적 분석 보다는 생애사 분석과 같은 질적연구를 통해 그들의 삶을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도덕귀감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도덕민감성

사이에서 어떠한 갈등도 겪지 않았다.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을 위한 이익은 곧바로 도덕행동의 동기로 연결된다. 즉 개인의 정체성에 도덕중심화(moral centrality)를 이룬 귀감자들은 도덕적 확신을 자아에 끊임없이 불어 넣는다(Frimer & Walker, 2009). 이는 도덕적 자아와 정체성 대해 연구한 Blasi(1984), Damon(1984; Colby & Damon, 1992), Gibbs(1991), Hart(1998), 도덕행동과 관련된 자아정체감 요소들 사이의 도덕적 균형을 강조한 Nisan(1995)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도덕귀감자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덕심리학을 이어갈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는 것이었다. 그들이 제시한 도덕적 인간상(moral personhood)은 도덕중심화를 이룬 이상적 인격체로, 삶의 목표와 동기가 도덕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도덕적 인간상은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개인 행위자와 공동체 일원으로서 개인이 겪게 되는 갈등에서 완전한 균형을 찾은 상태이다(Frimer & Walker, 2009). 전인적 인격체로서의 도덕적 인간상 패러다임은 지금까지 도덕심리학 이론에서 다룬 인지, 정의적 측면의 모든 도덕성 요소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도덕적 인간상은 Lickona의 통합적 인격 교육이 갖고 있는 매력이자 한계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Lickona의 통합적 인격 교육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도덕추론 및 인지 발달, 사회 및 감정 학습, 덕교육, 배려 공동체 등 모든 도덕발달 및 교육을 포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로 인해 개념 정의가 쉽지 않다. 또한 도덕적 사고와 감정의 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며, 사고와

행동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제시된 양심, 공감, 겸양 등과 같은 정의적 요소들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정창우, 2004).

결과적으로 도덕적 인간상 패러다임은 도덕 철학에 기반하고 있으며 도덕성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전인적’ 개념이라는 한계로 인해 사례 중심의 능력발현 연구나 도덕성 발달 연구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워 보인다.

물론 전인적 이론에 기반하고 있는 모형이나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이상적인 논의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Boyatzis(2008)의 역량 이론은 전인적 이론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교육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개인 내·외적 요구와 환경적 영향력,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공한다.

도덕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도덕귀감자 사례 연구는 인식 연구와 같이 여전히 도덕귀감자의 성격 특성(trait)을 찾고 유형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들이 찾아 낸 청렴이나 정직함과 같은 도덕귀감자들의 특성은 교육을 통해 개발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Park & Peterson, 2006). 이러한 특성적 접근은 자칫 도덕적 유능성이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역량중심 접근에서는 이를 도덕귀감자들의 역량은 후천적으로 길러진 것이지만 아무런 잠재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개발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도덕귀감자에 대한 역량모델링은 그들이 도덕적인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지식, 태도, 정서 등의 특성에 대한 직접적인 360도 평가 분석과, 도덕행동에 영향을 미

친 행동과 경험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까지를 다루고 있다.

수행을 통한 도덕성 연구라는 역량중심 접근의 특수성은 기존의 도덕심리학적 도덕귀감자 사례 연구들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그러나 도덕귀감자에 대한 도덕심리학 접근 방식이 도덕역량의 구조를 밝히는 데 유용한 사례를 제시해준다 할지라도, 도덕귀감자들의 능력을 통합적으로 해석하지는 못하며 도덕귀감자의 성격 특성에 치우친 결과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역량중심 접근 방식으로 도덕귀감자를 연구할 때의 이점은 특히 결과물의 제시와 활용 부분에 있다. 역량모델링은 도덕귀감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들을 일반인과 단순히 비교하고 분류하는 심리학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우수한 수행자들의 실제 사례를 기초로 도덕적 수행 역량을 종합한 역량모델과 역량사전을 산출한다. 도덕역량모델과 역량사전은 평균 혹은 평균 이하의 도덕행동 수행자 또는 비도덕적 행동이나 사건으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알려주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또한 우수한 직무 성과자를 가려내기 위한 체계적인 선별 방법을 가지고 있는 역량중심 접근은 도덕귀감자의 선정 및 타당화 작업에 유연하게 적용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역량 연구 방법의 수행 분류 방식을 활용하여 도덕적 수행의 여러 차원과 우수한 도덕적 수행의 기준을 정립하여 도덕귀감자들의 도덕역량을 분석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도덕귀감자에 대한 역량중심 연구 방법이 도입된다면 도덕귀감자들의 비범한 수행

내면에 숨어 있는 복잡성이나 독특한 차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들이 보이는 개인 내적 특성과 외부 환경과의 도덕적인 상호작용은 역량의 관점에서 역량 연구 방법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III. 논의 및 결론

학교교육의 개혁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제시되는 역량에 대한 논의는 현재 교육과정과 교육철학 등 교육학 전반에 걸쳐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서울대학교 교육학과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사업단, 2010). 역량에 대한 간학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기능과 능력에 대한 다양한 역량신조어 또한 만들어지고 있다.

도덕성에 대한 역량중심 접근은 이러한 한국 내 교육개혁 논의와 도덕발달 연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미국 도덕심리 학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움직임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도덕심리학자들은 Kohlberg 이후의 도덕성 이론을 이어 갈 새로운 패러다임을 꾸준히 연구해왔고, 현재 그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한 논쟁 속에 각자의 패러다임을 완성해가고 있다.

도덕성 발달에 대한 역량중심 접근은 도덕성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서의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도덕심리학과 역량중심 접근은 인간의 다양한 내적 능력을 강조하며, 그 능력들을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교육을 통해 개발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

도덕성과 역량은 인간의 내적 능력에 기반한다는 포괄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그 발현 과정이나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중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개념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도덕역량 연구는 앞으로 다양한 경험 연구를 거쳐 도덕심리학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킬 것이다.

물론 역량 패러다임을 도덕성 발달 및 도덕교육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신행동주의의 부활이나 성과지상주의로 인한 지식교육의 부재라는 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역량은 수행을 통해서만 추론되다보니 관찰 가능하고 측정가능 한 가시적 행동요소를 중심으로 인간능력을 평가하는 행동주의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박민정, 2009). 실제로 역량기반 교사교육에서는 교사역량의 개념이 교수행위의 반성적, 실천적 측면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서 수행중심, 행위중심 교육을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윤정일 등, 2007). 본고는 이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역량중심 접근과 도덕심리학 접근, 역량과 도덕성 개념의 본질적 유사점에 주목하고 있다.

역량을 편협한 시각으로 해석할 경우 역량이라는 능력이 포괄하고 있는 특성과 다차원적인 본질은 사라지고 만다. 역량이라는 개념은 지식, 기술, 특질, 동기, 자기 개념, 태도, 가치 등과 같은 개인의 내적인 특성을 포괄하는 집합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역량은 눈에 보이는 수행이나 행동만이 아닌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잠재 능력까지를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인 것이다.

최근의 역량 접근은 메타역량, 반성적 성찰,

암묵적 지식 등의 차원에서 역량을 해석함으로써 행동주의 접근과는 다른 관점에서 역량을 개념화하고 있다(박민정, 2009). 이 외에 수행성, 맥락성, 학습가능성이라는 역량의 본질적 특성은 여러 비난에도 불구하고 역량 연구가 확장되고 있는 이유이다.

도덕역량은 도덕적 수행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며, 교육을 통한 도덕성 발달을 위해 역량의 학습가능성에 주목한다. 또한 도덕 행동은 추상적이고, 불안정하며, 가치 지향적인 복잡한 심리현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도덕역량은 개인 역량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집단 및 문화적 역량이 통합된 개념이다.

도덕역량의 이러한 성격 특성을 고려할 때 도덕역량은 인간의 도덕적 비범성 및 도덕적 잠재 능력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요구한다. 도덕 행동을 유발하는 복잡한 심리과정은 차지한다 해도 도덕 사태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는 분명한 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제 학문적 논의 선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도덕역량 개념은 지난 50여 년 간 도덕심리학 영역에서 연구되어 온 다채로운 도덕행동의 요소들을 단순히 역량이라는 개념으로 통합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도덕역량 연구는 인간의 다양한 내적 능력 중 특히 도덕적 수행에 관련된 능력들을 역량 연구방법을 통해 체계화하여 교육을 통해 개발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끝으로 도덕역량 연구에 적합한 역량 연구 방법들을 탐색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탐색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도덕역량의 실체를 규명하고 교육적 논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역량 모델링과 역량 사전이 개발되어야 한다. 도덕역량에 필요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도덕역량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도덕역량 및 도덕적 수행에 대한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도덕행동의 고수행자인 도덕귀감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이 지혜, in progress).

역량에 대한 논의는 결국 역량 모델링의 개발로 이어진다. 역량 모델링은 역량의 학습가능성이라는 특성을 현실화 하는 도구이다. 역량 모델링은 수행의 결과물이 추상적이고 복잡한 가치체계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그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는 McLagan(1980)의 주장은 도덕역량 모델링의 가능성을 지지해준다.

역량모델링의 주요 방법인 행동사건면접(Behavioral-Event Interviews),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과 역량 설문지, 역량의 중요도와 실행도를 비교하는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분석 등은 도덕역량 모델링에 적용해 볼 만하다.

최근 역량 모델링은 직무분석 자료에 기반한 Spencer와 Spencer식의 평면적 모형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역량의 성격에 걸맞게 새로운 모습으로 개발되고 있다. 한 예로, 심리학 전문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을 두 영역과 한 개의 축을 이룬 입체적인 입방형 모형으로 제시한 역량 큐브모형(Cube Model)은 도덕역량 모델링에 시사점을 준다(Rodolfa et al., 2005).

큐브모형에서 심리학자가 습득해야 지식과 기술은 본질적 영역, 심리학적 지식·기술·태도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기능적 영역으로, 이 두 영역은 전문성 발달의 단계

를 나타내는 축을 중심으로 상호작용 한다(Rubin et al., 2007). 큐브모델은 우리에게 익숙한 역량 모델링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으나, 도덕심리학 분야에서 도덕역량을 새롭게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결과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덕역량 모델링의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제는 한국인이 인식하는 도덕적 수행의 기준과 한국적 정서를 반영한 도덕귀감자를 찾는 일이 될 것이다. 문화심리학의 관점에서 한국인의 심층심리 속에는 정, 한, 우리성, 외국과는 다른 한국의 부모-자녀관계 등 확연히 드러나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최상진, 2011). 한국 사회의 도덕적 인간상 연구에 따르면 관계에 기반한 정, 우리성 등은 도덕적 동기 역할을 하며, 도덕적 정서와도 관련된다(고미숙, 2010).

국내에서 이루어진 도덕귀감자에 대한 예비 인식조사에서도 소수의 응답이었지만 Walker와 Hennig(2004)의 대규모 인식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은 단어들이 발견되었다(Lee, 2009). 도덕행동에 있어서도 한국인은 부정직 행위인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인식 유형에서 동양 문화권의 특수성을 보여주었다(문용린 등, 2008). 따라서 한국 상황에 적합한 도덕역량 모델링을 위해서는 도덕귀감자를 인식하고 선정하는 기준에 동서양의 차이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도덕행동을 결정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고미숙 (2010). 도덕적 인간상으로서 정(情)있는 인간 탐구. *윤리교육연구*, 22, 131-156.
- 고종식, 이옥분 (2007). 윤리적 의사결정과 직무만족에 있어서 상사의 도덕적 역량의 조절변수 효과. *대한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11월 24일) 발표논문집, 645-656.
- 김광민 (2009). 역량기반(Competency-based) 교육의 매력과 한계. *도덕교육연구*, 20(2), 171-197.
- 김창대, 민경화, 윤숙경, 최한나, 공은혜 (2008). 대인 역량에 대한 직장인들의 인식: 한국의 사례.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9(2), 221-232.
- 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2008). 한국인의 거짓말 유형과 정당화 양식 연구. *인간발달연구*, 15(3), 191-205.
- 문용린, 유경재, 전종희, 엄채운 (2007). 개인의 역량 측정을 위한 다중지능 하위요소의 재분석. *교육심리연구*, 21(2), 283-309.
- 박경선, 최애경 (2008). 조직적, 상황적 요인에 따른 비서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비서학 논총*, 17(2), 5-26.
- 박민정 (2009).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특징과 비판적 쟁점 분석: 내재된 가능성과 딜레마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7(4), 71-94.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사업단, BK21 핵심역량 연구센터 (2010). *역량기반교육: 새로운 교육학을 위한 서설*. 서울: 교육과학사.
- 오현석 (2007). *역량중심 인적자원개발의 비판*

- 과 쟁점 분석. *경영교육논총*, 47, 191-213.
- 윤정일, 김민성, 윤순경, 박민정 (2007). 인간 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역량의 특성과 차원. *교육학연구*, 45(3), 233-260.
- 윤현진 (2008). 미래 한국인에 필요한 역량과 도덕·윤리 교육. *윤리연구*, 68, 253-272.
- 이승미 (2004). 조직구성원의 윤리적 의사결정 의도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정렬 (2008). 도덕적 인격 형성을 위한 도덕적 정체성의 역할과 도덕교육적 함의.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이흥민, 김종인 (2003). *핵심역량 핵심인재*. 서울: 한국능률협회출판.
- 정창우 (2004).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서울: 교육과학사.
- 최상진 (2011). *한국인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Bebeau, M. J. (1993). Designing an outcome-based ethics curriculum for professional education: strategies and evidence of effectiveness. *Journal of Moral Education*, 22(3), 313-326.
- Bebeau, M. J. (2002). The defining issues test and the four component model: contributions to professional educa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31(3), 271-295.
- Blasi, A. (1984). Moral identity: Its role in moral function. In W. M. Kurtines & J. L. Gewirtz(Ed.),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pp.128-139). New York: Wiley.
- Boyatzis, R. E. (2008). Competencies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Management Development*, 27(1), 5-12.
- Brugman, D. & Aleva, A. E. (2004). Developmental Delay or Regression in Moral Reasoning by Juvenile Delinquents? *Journal of Moral Education*, 33(3), 321-338.
- Colby, A. & Damon, W. (1992). *Some Do Care: Contemporary Lives of Moral Commitment*. New York: The Free Press.
- Corley, M. C. (2002). Nurse Moral Distress: A Proposed Theory and Research Agenda. *Nursing Ethics*, 9(6), 636-649.
- Damon, W. (1984). Self-understanding and Moral Development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In W. M. Kurtines & J. L. Gewirtz(Ed.),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pp.109-127). New York: Wiley.
- _____ (2004). *The Moral Advantage: How to Succeed in Business by Doing the Right Thing*. Berrett-Koehler.
- Duriez, B. & Soenens, B. (2006). Religiosity, Moral Attitudes and Moral Competence: A Critical Investigation of the Religiosity-Morality Re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0(1), 76-83.
- Dwyer, S. (1999). *Moral competence*. In Murasugi & Kumiko(Ed.), *Philosophy and Linguistics* (pp 169-190). Westview Pr.
- Ellemers, N., Pagliaro, S., Barreto, M., & Leach, C. W. (2008). Is it better to be moral than smart? The effects of morality and competence norms on the decision to work at group status impro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6), 1397-1410.
- Frimer, A. J. & Walker, L. J. (2008). Towards a

- new paradigm of moral personhood. *Journal of Moral Education*, 37(3), 333-356.
- _____ (2009). Reconciling the self and morality: An empirical model of moral centrality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5(6), 1669-1681.
- Gardner, H. (2007). *Responsibility at work*. Jossey-Bass.
- Gibbs, J. C. (1991). Toward an integration of Kohlberg's and Hoffman's theories of morality. In W. M. Kurtines & J. L. Gewirtz(Ed.),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Vol. 1 Theory* (pp.183-22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Gibbs, J. C. (2003). *Moral development and reality*, SAGE Publication.
- Gibbs, J. C., Moshman, D., Berkowitz, M. W., Basinger, K. S., & Grime, R. L. (2009). Taking development seriously: critique of the 2008 JME Special Issue on moral functioning. *Journal of Moral Education*, 38(3), 271-282.
- Good Work Project Team (2006, 2008). *The Good Work Project: An overview*. from <http://www.goodworkproject.org>
- Hart, D. (1998). Can Prototypes Inform Moral Developmental Theory?. *Developmental Psychology*, 34(3), 420-423.
- Haste, H., & Abrahams, S. (2008). Morality, culture and the dialogic self: taking cultural pluralism seriously. *Journal of Moral Education*, 37(3), 377-394.
- Hoffman, M. L. (1984). Interaction of affect and cognition in empathy. In C. E. Izard, J. Kagan, & R. B. Zajonc(Ed.),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pp.103-13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ffman, T. (1999). The meaning of competency.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23(6), 275.
- Jormsri, P., Kunaviktikul, W., Ketefian, S., & Chaowalit, A. (2005). Moral Competence in Nursing Practice. *Nursing Ethics*, 12(6), 582-594.
- Kim, M. K., & Sankey, D. (2009). Towards a Dynamic Systems Approach to moral development and moral education: a response to the JME Special Issues, September 2008. *Journal of Moral Education*, 38(3), 283-298.
- Kuther, T. L. (2000). Moral reasoning, perceived competence, and adolescent engagement in risky activity. *Journal of Adolescence*, 23(5), 599-605.
- Kurtines, W. M. & Gewartz, J. L.(Ed.), (2004). 도덕성의 발달과 심리. 문용린(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5년에 출판).
- Lapsley, D., & Hill, P. (2008). On dual processing and heuristic approaches to moral cogni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37(3), 313-332.
- Laupa, M., & Turiel, E. (1995). Social domain theory. In W. M. Kurtines. & J. L. Gewartz(Ed.), *Moral Development: An Introduction* (pp.455-474). Pearson education, Inc. Allyn & Bacon.
- Lee, J. (2009). Stabilities and unstabilities in the self-perception of moral personhood. Poster presentation, *4th Annual Conference, Asia Pacific*

- Network for Moral Education*, May.
- Lind, G. (2008). Teaching students to speak up and to listen to others: Fostering moral-democratic competencies. In D. E. Lund. & P. R. Carr(Ed.), *Doing democracy and social justice in education: Political literacy for all students* (pp.185-200). New York: Peter Lang Publishing.
- Liszka, J. J. (1999). *Moral Competence: An Integrated Approach to the Study of Ethic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Lucia, A., & Lepsinger, R. (1999). The art and Science of Competency Models: Pinpointing Critical Success Factors in Organizations. Jossey-Bass.
- Matsuba, M. K., & Walker, L. J. (2005). Young adult moral exemplars: the making of self through stori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5(3), 275-297.
- McClelland, D. C. (1998). Identifying competencies with behavioral-event interviews. *Psychological Science*, 9(5), 331-339.
- McLagan, P. A. (1980). Competency models. *Training and Development Journal*, December, 22-26.
- Narvaez, D., & Rest, J. (1995). The four components of acting morally. In W. M. Kurtines. & J. L. Gewartz(Ed.), *Moral Development: An Introduction* (pp.386-400). Pearson education, Inc. Allyn & Bacon.
- Narvaez, D., & Vaydich, J. (2008).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ur under the spotlight of the neurobiological sciences, *Journal of Moral Education*, 37(3). 289-312.
- Nisan, M. (1995). Moral balance: a model for moral choice. In W. M. Kurtines. & J. L. Gewartz(Ed.), *Moral Development: An Introduction* (pp.475-492). Pearson education, Inc. Allyn & Bacon.
- Oser, K. F., Althof, W., & Higgins-D'Alessandro, A. (2008). The Just Community approach to moral education: system change or individual change?. *Journal of Moral Education*. 37(3). 395-415.
- Park, N., & Peterson, C. (2006). Moral competence and character strengths among adolescents: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Values in Action Inventory of Strengths for Youth. *Journal of Adolescence*, 29, 891-909.
- Patiño-González, S. (2009). Promoting ethical competencies: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in Mexic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38(4), 533-551.
- Petrick, J. A., & Quinn, J. F. (2000). The Integrity Capacity Construct and Moral Progress in Business. *Journal of Business Ethics*, 23. 3-18.
- Power, F. C. (1997). Understanding the character in character education. in Nucci, L. (Chair), *Development perspectives and approach to character education. Symposi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Chicago, March 1997.
- Reed, D. C. (2009). A multi-level model of moral functioning revisited. *Journal of Moral*

- Education*, 38(3), 299-313.
- Reed, D. C., & Stoermer, R. (2008). Towards an integrated model of moral functioning: and overview of the Special Issues, *Journal of Moral Education*, 37(3), 417-428.
- Rest, J. R. (1986).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Praeger.
- Rest, J. R., & Narváez, D. Eds. (1994). *Moral development in the professions: Psychology and applied ethic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ichard, P. (2008). A competency approach to developing leaders-is this approach effective?. *Australian Journal of Adult Learning*, 48(1), 131-144.
- Rodolfa, E., Bent, R., Eisman, E., Nelson, P., Rehm, L., & Ritchie, P. (2005). A cube model for competency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psychology educators and regulator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6(4), 347-354.
- Rubin, N. J., Bebeau, M., Leigh, I. W., Lichtenberg, J. W., Nelson, P. D., Portnoy, S., Smith, I. L., & Kaslow, N. J. (2007). The competency movement within psychology: An historical perspectiv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8(5), 452-462.
- Rugeley, C., & Wart, M. V. (2006). Everyday moral exemplars: The case of judge Sam Medina, *Public Integrity*, Fall, 381-394.
- Rule, J. T., & Bebeau, M. J. (2005). *Dentist who care : Inspiring stories of professional commitment*. Quintessence Publishing Co, Inc.
- Rychen, D. S., & Salganik, L. H. (2003). A holistic model of competence. In D. S. Rychen, & L. H. Salganik(Ed.), *Key competencies for a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pp.41-62). Cambridge, MA: Hogrefe & Huber.
- Sandberg, J. (2000). Understanding Human Competence at Work: An Interpretative Approac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 (1), 9-25.
- Schippman, J. S., Ash, R. A., Battista, M., Carr, L., Eyde, L. D., Hesketh, B., Kehoe, J., Pearlman, K., Prien, E. P., & Sanchez, J. I. (2000). The practice of competency modeling. *Personnel Psychology*, 53(3), 703-738.
- Sekerka, L. E. (2009). Organizational Ethics Education and Training: A Review of Best Practices and Their Appl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13(2), 77-95
- Spencer, L. M., Jr., & Spencer, S. M. (1993). *Competency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Wiley & Sons.
- Spurgin, E. W. (2004). The Goals and Merits of a Business Ethics Competency Exam. *Journal of Business Ethics*, 50, 279-288.
- Staub, E. (1995). The roots of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in persons and groups: environmental influence, personality, culture, and socialization. In W. M. Kurtines. & J. L. Gewartz(Ed.), *Moral Development: An Introduction* (pp.431-454). Pearson education, Inc. Allyn & Bacon.

- Straughan, R. D., & Lynn, M. (2002). The effect of salesperson compensation on perception of salesperson hones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4), 719-731.
- Thelen, E., & Smith, L. B. (1994). *A dynamic systems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cognition and action*. MIT Press.
- Walker, L. J. (1995). Sexism in Kohlberg's moral psychology?. In W. M. Kurtines. & J. L. Gewartz(Ed.), *Moral Development: An Introduction* (pp.83-108). Pearson education, Inc. Allyn & Bacon.
- _____ (1999). The Perceived Personality of Moral Exemplars. *Journal of Moral Education*, 28(2), 145-161.
- _____ (2002). The model and the measure: an appraisal of the Minnesota approach to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Moral Education*, 31(3), 353-367.
- Walker, L. J. & Frimer, J. A. (2007). Moral personality of brave and caring exempla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5). 845-860.
- Walker, L. J. & Hennig, H. K. (2004). Differing Conceptions of Moral Exemplarity: Just, Brave, and Car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4). 629-647.
- Walker, L. J. & Pitts, R. C. (1998). Naturalistic Conceptions of Moral Matu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4(3). 403-419.
- Wojciszke, B. (2005a). Affective concomitants of information on morality and competence. *European Psychologist*, 10(1), 60-70.
- _____ (2005b). Morality and competence in person-and self-perception.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6, 155-188.

1차 원고접수 : 2011. 3. 31
수정원고접수 : 2011. 5. 18
최종게재결정 : 2011. 5. 25

A Competency-based Approach to Moral Development: identifying moral competence

Lee, Jihye

Moon, Yong-Lin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lthough there have been a great many studies on moral development theories over the past 50 years, our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moral functioning from the moral psychological point of view is still incomplete. Moral psychologists are now looking for a new paradigm toward a more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moral functioning model.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mpetency-based approach as an integrated perspective to moral development, based on the considerable similarities between competence and morality. Moral competence embodies significant forms of moral excellences and extraordinary moral performances shown by moral exemplars. Moral competence is characterized as follows: First, it is an ability to practice moral behavior continuously and consistently. Second, it is based on the clear realization of right and good behavior as a result of the interaction between moral behavior-constituting elements. Third, it is a comprehensive concept of individuals' inner characteristics, such as moral sentiments, knowledge, attitudes, dispositions etc. Fourth, it not only includes the individuals' personal competences, but also the competences of the groups and cultures that the individuals belong to. This study concluded that prospective moral competence modeling requires a moral exemplar standard which reflects the sentiments and different dimensions of moral performance amongst Koreans.

Key words : morality, moral competence, moral exemplar, moral psychology, competency-based approach